

문화예술 진흥 기여 6명 '전남도 문화상' 수상

전남도는 지난 16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공로자 6명에게 전남도 문화상을, 예향 전남의 명성을 드높인 예술인 8명에게 전남도 명예예술인 지정서를 수여했다.

수여식은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임철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남연합회장, 김봉수 전남문화원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문화상 시상, 명예예술인 지정서·공로패 수여, 통합대학 국립의과대학 설립 염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지역 문화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남도 문화상은 문학 분야에서 강성남(72) 시인·김택환(66) 소설가, 예술 분야에서 김원규(75) 사진작가·윤진철(59) 국악인·박인희(67) 화가·김정호(56) 음악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성남 시인은 2003년 아동문학세상에 등단한 후 현대수필, 시조시학, 시꽃따라 문예지에 수필, 시조, 시 등을 집필하며 현재까지 활발한 문학 활동을 펼치고 청소년 멘토 활동 등 지역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택환 소설가는 2021년 곡성에 터를 잡고 정해박해 진원지 '곡성'을 배경으로 다룬 소설 '사랑과 혁명'으로 한국가톨릭문학상 본상을 수상

문학 강성남·김택환씨, 예술 김원규·윤진철·박인희·김정호씨
도, 예향 전남 명성 드높인 명예 예술인 8명에 지정서 수여도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6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열린 '제68회 전남도 문화상 시상 및 전남도 명예예술인 지정서 수여식'에서 전남문화예술 진흥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에게 상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했다. 곡성 거주민들을 위해 생태책방과 글쓰기 교실 운영, 곡성 섬진강마을 영화제 운영 등 마을운동가 활동에 힘쓰고 있다.

김원규 사진작가는 전남을 대표하는 원로 사진작가다. 6·7대 전남사진작가협회장을 역임하

면서 지역 사진예술 발전에 앞장섰으며 전남도 사진전 대상과 한국사진문화상 출판상 등을 수상했다.

윤진철 국악인은 보성소리 적벽가의 성취를 인정받은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다. 국립

국악원 원장 판소리 공연 등 지속적인 공연 활동으로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를 계승하고 화순 이양면에 자리잡은 판소리전수관을 중심으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박인희 화가는 장애를 가진 화가의 불굴의 삶이 지상과 방울에 반영됐다. 개인전 27회, 단체 및 초대전 600여회 이상 활동 경력과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 45년 동안 대한민국과 지역 미술 발전에 앞장섰다.

김정호 음악가는 클래식외의 불모지인 발교음에서 지역 문화를 소재로 한 독창적 작품 '태백산맥 환상곡'을 창작·공연하고 클래식과 전통 음악을 콜라보한 판클래식을 무대를 선보이는 등 발교 음악거리 활성화, 클래식 대중화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15년 이상 꾸준히 예술활동에 매진하면서 뛰어난 예술적 성취와 사회 기여를 통해 예향 전남의 명성을 드높인 예술인 8명에게 전남도 명예예술인 지정서를 수여했다.

분야별로 문학 김정호(77)씨, 국악 서정미(61)씨, 무용 황경하(67)씨, 사진 원수철(72)씨, 미술(서예) 임용운(69)씨, 미술(한국화) 박용규(82)·박재배(78)·김은옥(88)씨가 각각 지정됐다. /김재정기자



화순 천재어린이집, 이웃사랑성금 기탁

화순 천재어린이집은 "연말을 맞아 최근 원아들이 58만2천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이웃사랑성금으로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천재어린이집은 지난 9월27일 어린이집 운동장에서 아나바다(시장놀이) 행사를 통해 원아들이 합리적인 경제생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고, 시장놀이에서 나한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깨끗한 물건(옷, 장난감, 도서, 문구류, 신발, 생활용품 등)을 모아 필요한 사람과 나눠 쓸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수업에서 모금한 수익금 전액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기탁된 성금은 장애인,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정 기탁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인사

광주시 ◇3급 승진 ▲미래차산업과 최태조 ▲공간혁신과 신재욱

◇4급 승진 ▲여성가족과 김남천 ▲인사정책관 김종호 ▲사회재난과 문길상 ▲교육지원정책과 유만근 ▲5·18민주과 정정록 ▲돌봄정책과 박영숙 ▲에너지산업과 박준식 ▲공공보건의료과 강윤선 ▲물관리정책과 김훈 ▲도로과 이한민

◇5급 승진 ▲여성가족과 강병호 ▲감사위원회 고영훈 ▲군공항이전추진단 고흥식 ▲노동일자리정책관 김미설 ▲안전정책관 김상중 ▲문화정책관 김진구 ▲대학인재정책과 오유미 ▲정책기획관 오지은 ▲돌봄정책과 이철구 ▲문화정책관 정선화 ▲기후대기정책과 진정화 ▲노동일자리정책관 최영랑 ▲장애인복지과 최혜숙 ▲세정과 정재강 ▲자치행정과 송상호 ▲도로과 유희숙 ▲여성가족과 송안선 ▲회계과 나우철 ▲미래차산업과 안정홍 ▲미래차산업과 손경우 ▲농업동물정책과 강지희 ▲농업동물정책과 서은주 ▲로봇기초의료산업과 양지윤 ▲안전정책관 김경규 ▲군공항이전추진단 유정석 ▲정책기획관 이현정 ▲문화도시조성과 김지현 ▲보건환경연구원 김지연

한국전력 ◇본부장 ▲영업본부장 백우기 ▲기술혁신본부장 문일주

◇본사 체(실)장 ▲재무처장 주화식 ▲노사협력처장 김정국 ▲상생조달처장 권경주 ▲안전처장 김동민 ▲배전계획처장 이경윤 ▲수요효율처장 신은섭 ▲에너지생태계조성처장 유동희 ▲계통기획처장 오현진 ▲신송전개발처장 김형근 ▲계통기술실장 이상규 ▲해외원전개발처장 주재각 ▲UAE원전건설처장 한승훈

◇차 사업소장 ▲서울본부장 이재호 ▲남서울본부장 이재현 ▲경기북부본부장 박우근 ▲대전세종충남본부장 신경휴 ▲부산울산본부장 김재균 ▲경남본부장 김재국 ▲제주본부장 홍용기 ▲경영연구원장 강민석 ▲ICT운영처장 윤준철 ▲전력기재센터장 곽상영 ▲HVDC건설본부장 김호기

광주시 최우수 적극행정 '매립장 불필요시설 제시 예산절감' 선정

우수 공무원에 류두상·김현숙·강웅·홍인표·군공항이전추진단

광역위생매립장 색도 저감시설 설치의 불필요성을 제시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광주시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17일 "최근 시청에서 '제3차 적극행정 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공무원에는 자원순환과 류두상 주무관, AI반도체과 김현숙 사무관, 경제정책과 강웅 주무관, 세정과 홍인표 주무관, 군공항이전추진단이 뽑혔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시민 공감도가 높고 창의

성·전문성이 돋보이는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부서 추천 13건 중 철저한 실적 검증과 예산심사를 거쳐 등급을 결정했다.

최우수 사례는 '광역위생매립장 색도 저감시설 설치의 불필요성 제시로 시설비 40억원 등 예산절감'(자원순환과 류두상 주무관)이 차지했다.

우수 사례는 '광주 최초 반도체 설계(팹리스) 기업 유치로 팹리스-팹-패키징 반도체 생산체계 완성'(AI반도체과 김현숙 사무관)과 '민간 배달업체 횡포에 맞서는 광주공공배달업체 시장점유율 17.34% 달성'(경제정책과 강웅 주무관)이



류두상 김현숙 강웅 홍인표

선정됐다.

또 다양한 채권을 이용한 압류 확대를 추진해 법원 채권 압류 실적 증가에 기여한 '전국 최초 법원 사건을 활용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다'(세정과 홍인표 주무관)와 '직접소통으로 군 공항

이전의 열쇠를 찾다'(군공항이전추진단)가 장려사례로 뽑혔다.

군공항이전추진단은 부서 전 직원이 노력한 공로를 인정해 공적자 추천을 하지 않았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적자인 우수 공무원에게는 상장과 인사특전(인센티브)이 부여되며 사례 소관부서에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올해부터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주민모니터링단이 예산 심사에 참여했다. /변은진기자

광주시, 별별홍보 성과 공유 화합한마당

광주시는 17일 "광주홍보협의회 주관으로 시청 시민홀에서 '2024 광주 홍보성과 공유한마당 별별홍보지(G)'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홍보협의회는 기관별 주요 정책 방향과 홍보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홍보담당자 회의기구로,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광주관광공사, 광주교통공사, 광주문화재단 등 총 1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 동구와 광주문화재단의 우수 홍보활동 사례를 공유했다.

광주시는 참신한 콘텐츠를 생산해 광주시와 기관의 홍보활동을 활발히 한 시민기자 15명에게 '우수 시민기자상'을 수여했다.

홍보담당자와 시민기자단의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명사 강연도 마련됐다.

강연은 MBC 예능프로그램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나 혼자 산다' 등을 연출한 김지우 PD와 광주맛집 유튜브 '슈가도끼'가 강사로 나섰다. /변은진기자



1층 시민홀에서는 홍보협의회 소속기관의 올해 홍보 성과를 담은 전시와 소설기자단의 광주 곳곳을 담은 사진전이 열렸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그동안 광주 홍보를 위해 현장에서 힘써 주신 각 기관 홍보담당자와 시민기자단의 노력 덕분에 더욱 빛나는 2024년 광주가 될 수 있었다"며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동구자원봉사센터-웨딩의 거리 업체들 '김치 나눔'

(사)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는 17일 "동구 불로동에 위치한 웨딩의 거리 업체 4곳으로부터 김장김치(10kg) 65상자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따뜻한 나눔을 전한 업체는 ▲시스템웨딩컨설팅 ▲오늘웨딩컨설팅 ▲시크릿드레스샵 ▲미유웨딩스튜디오 등 4곳이다.

각 업체들은 총장동 마을사랑채에서 김장에 필요한 양념 준비부터 취약계층에게 김치 전달까지 함께했다.

김찬권 시스템웨딩컨설팅 대표는 "힘들었지만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에게 드릴 김장김치를 담그는 사실에 기쁘기도 했다"며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공헌에 더욱 노력하겠다"

전남도 '어르신지킴이단 소통 워크숍' 성료

전남도는 17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22개 시·군 어르신지킴이단과 관계 공무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어르신지킴이단 소통 워크숍'을 개최, 행복한 동행으로 어르신 돌봄에 앞장서기로 했다.

어르신지킴이단은 홀로 사는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 전남도가 2016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2천516명의 단원이 홀로 사는 어르신과 결연해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고 말벗 활동을 하는 등 대표 행복 나눔 상생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지킴이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응급안전 교육과 실습으로 진행됐다. 어르신지킴이단 운영에 공로가 큰 9명에게 전남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험한 우수 사례와 각 시·군민의 경험도 공유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어르신지킴이단과 상호



고 약속했다. 김순권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2년째 나눔을 실천한 웨딩의 거리 업체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정성으로 담긴 김장 김치가 겨울철 어려운 분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영기자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과 등 홀로 사는 어르신의 피해 예방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어르신 곁을 지켜주는 지킴이단의 헌신적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속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어르신과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 안전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오비맥주, 빚고을장학금 1천500만원 기탁

(주)오비맥주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씨달라며 장학금 1천500만원을 빚고을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재)빚고을장학재단(이사장 강기정 광주시장)은 1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과 오비맥주 양우천 광주공장장, 이윤섭 호남권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비맥주 빚고을장학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오비맥주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2008년부터 22년간 매년 빚고을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억5천500만원을 전달했다.

양우천 오비맥주 광주공장장은 "지역사회 미래의 주역인 지역 인재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이 꺾이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내 고장 맥주인 오비맥주에 대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지역 인재 성장의 소중한 디딤돌이 되는 장학금을 22년 간 기탁해준 오비맥주에 감사드린다"며 "미래 주역을 키우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변은진기자